

세계는 지금 비트코인 내전중 “버블이다 아니다” 설전 뜨거워

지난 3월2일 금값 뛰어넘으며 역전...발행량 제한 희소성 있어 월가 경영자들 “사기일뿐” IT전문가들 “보안·안전성 보장”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달 사상 처음으로 개당 1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천정부지로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천재 프로그래머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든 이 가상 화폐가 루기 양상을 보이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을 빚자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2의 돌립열풍에 비유되는 이 자산의 버블 여부 법정 화폐를 대체할 잠재력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지난 2014년 일본의 마운트곡스 파산 등 악재를 딛고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해온 비트코인이 사상 초유의 1만 달러 고지를 넘어선 때는 지난달 29일(GMT기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달 28일 개당 9000달러(약 983만원) 선을 넘어선지 꼭 사흘 만이다.

이 가상화폐의 가파른 가격 상승세는 비트코인 낙관론자들의 예상마저 비웃는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스탠드포인트리서치의 창업자 로니 모야스가 이 화폐 가격이 내년 중 5000달러(약 578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본 시기가 지난 7월5일이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를 투기를 부추기는 ‘사기꾼’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당시 비트코인은 28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올 들어 꾸준히 오르던 비트코인이 집적 변화의 변곡점을 맞은 것은 지난 3월2일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처음으로 금값을 훌쩍 뛰어넘으며 비트코인-금값 역전 시대를 활짝 열었다. 장중 한때 1283.3달러(약 140만원)를 찍었다. 이 가상화폐가 같은 시간 대 온스 당 금값(1241.25달러(135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이 변을 연출한 것이다. 비트코인이

금값을 추월한 것은 처음이다. 이러한 가격 역전 현상이 전문가들의 눈길을 끈 배경은 금의 상징성 때문이다. 금은 금본위제 하에서 영국, 미국 등 패권국들의 기축 통화를 떠받치는 지지대 역할을 해왔다. 금 달러 태환 중단을 선언한 미국의 너슨 행정부 이후 그 연결 고리가 끊기긴 했지만 금은 여전히 연화와 더불어 대표적 안전자산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금값을 뛰어넘은 배경으로 ▲희소성과 ▲주요 화폐 등 기존 투자대상 신뢰 저하를 꼽았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돼 희소성이 있는데다, 지난 2008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들의 양적완화(QE)로 화폐와 투자수단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 가상화폐를 둘러싼 수요가 커졌다는 진단이다. 소셜네트워킹(SNS)을 중심으로 루머를 퍼뜨리는 등 작전을 펼치는 투기 세력의 활동도 이러한 가격급등의 또 다른 배경으로 거론된다.

월가의 경영자들이 이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쟁에 속속 합류한 것도 이 시기를 전후해서다. 금의 가치를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앞서자 ▲이 화폐의 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부터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 통화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는 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양상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논쟁에 합류한 대표적 인사 가운데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미국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창업자 겸 회장이다. 달리오 회장은 자산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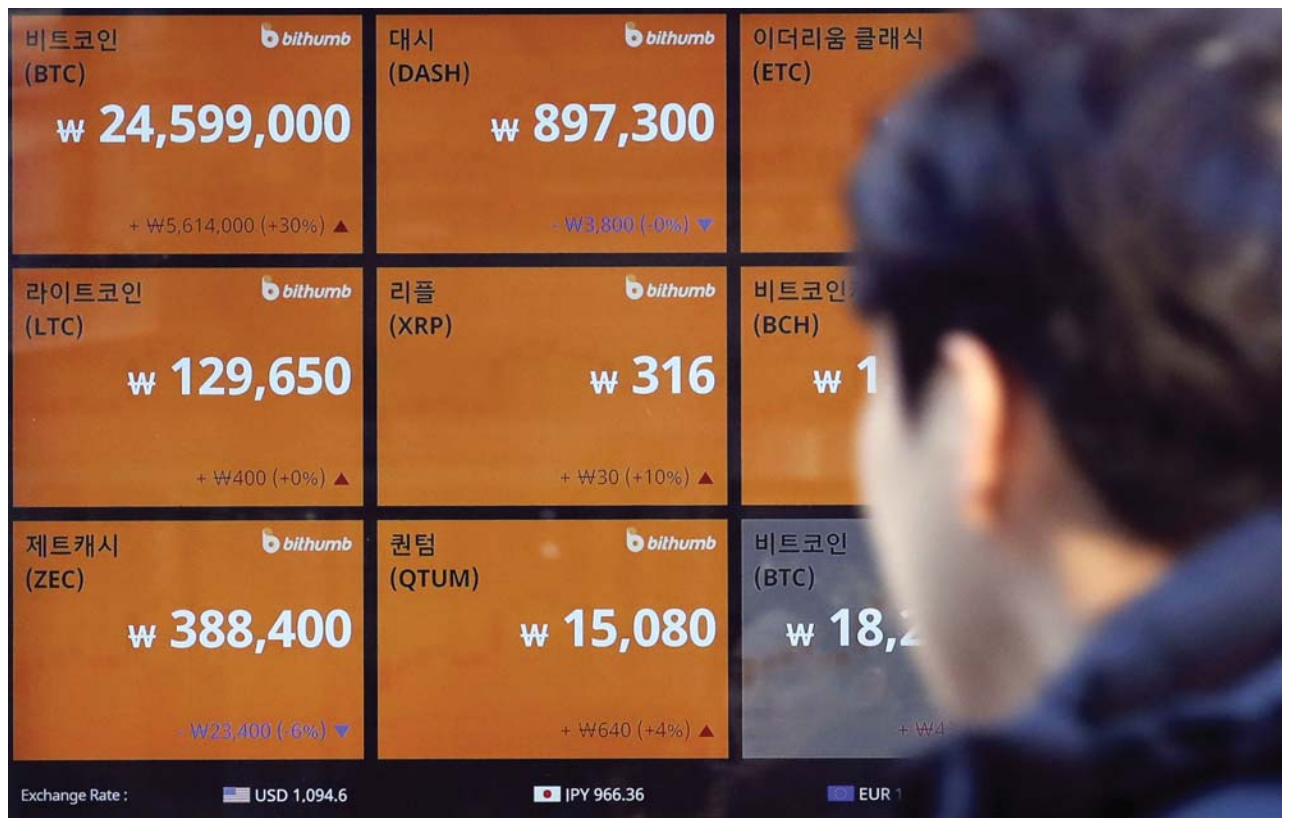
모 1600억 달러(약8037520억 원)의 브리지워터를 운용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 헤지펀드 매니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낸 전(錢)의 고수다.

달리오 회장은 지난 9월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고도로 투기적 시장(highly speculative market)에 속한다”며 “비트코인은 버블(bubble)”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상 화폐를 사두기만 하면 고가에 되팔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수요가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탐욕에 눈먼 시장의 광기가 이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을 부르고 있다는 의미다.

달리오 회장은 특히 이 가상화폐의 본질적인 결함으로 ‘변동성(volatility)’을 꼽았다. 가치 저장 수단이기도 한 화폐 역할을 하기에 가격 등락이 잦고 그 폭도 커서 안전자산인 금과 달리 부를 저장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도 앞서 지난 2013년 같은 이유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비관한 바 있다.

‘트럼프의 남자’로 불리는 거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도 월가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비관론자로 통한다. 지난해 9월 12일 열린 한 금융 컨퍼런스 상 수상자의 무대였다. 다이먼 회장은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은 사기에 불과하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사람들은 근본 없는 화폐로 비즈니스를 창출하지는 않고, 정부도 가상 화폐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신(財神)’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비트



코인이 금값을 앞서기 3년 전인 지난 2014년 이 화폐가 그 속성에 비해 볼 때 수포와 다를 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CNBC와 인터뷰에서 “수포로 돈을 전송하고 거래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종이 한 장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러한 비트코인 비관론자들의 목소리는 대개 두 갈래로 요약된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결국 화폐의 역할을 결코 할 수 없다는 논리가 한축이다. 화폐라기 보다는 상품에 가깝다는 것이다. 미국의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해 주로 대형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가격이 급락할 개연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에버딘 자산운용의 퍼터 드니어스 글

로발벤처캐피탈부문 대표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6월22일 “가상화폐는 버블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으며, 모든 버블처럼 그것은 곧 터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IT부문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 중에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웹 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를 널리 알린 미국의 마크 앤드리슨이 대표적 실례다. 그는 앞서 지난 2014년 뉴욕타임즈(NYT)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전송 과정에서 보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참여자들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신뢰한다. 그 파괴력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비트코인이 지난 2014년 일본 마운트 곡스 파산, 실크로드 사태, 일부 국가들의 ICO금지 등 숱한 악재를 겪으면서도 잡초처럼 되살아난 사례에 주목한다. 양측의 견해가 엇갈리는 데는 월가 금융인

들이 화폐로서 비트코인의 한계에 주목하는 데 비해, IT 전문가들은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자체의 잠재력 등 파괴적 혁신의 가능성에 방점을 찍기 때문에 풀이된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곧 급락할 지, 아니면 2만 달러선을 돌파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가 ▲신뢰의 네트워크로 불리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자 서비스라는 점에서 ▲또 오는 11월부터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가격 등락의 위험을 관리하는 선물 상품이 거래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투자 열풍을 ‘비이성적 과열’의 산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진단도 만만치 않다. 또 가상화폐이자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인 복합적 성격을 두루 이해해야 그 잠재력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뉴스

가상화폐 광풍에 거래소만 ‘때돈’... “당국 규제 강화해야”

국내 가상화폐 광풍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논란이 심각한 가운데 정작 일부 가상화폐거래소만 이번 광풍을 틈타 때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거래소는 잦은 보안사고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도 받지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업으로 규정하

지 않으면서 빚어진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다각도의 규제에 본격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주)비티씨코퍼레이션은 최근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올 상반기 327억원 수준의 매출에 278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내용이 담긴 기업소개서를 공개했다.

올 한 해 기준으로는 매출 1882억원, 영업이익 1645억원을 예상했으며, 내년엔 올해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배로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0.15%를 받고 있다. 이는 통상 0.015%인 증권사의 주식 매매 수수료 대비 10배 높은

수준으로 수수료만 하루 수십억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래 안정성과 보안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빗썸은 정부의 가상화폐 긴급 대책 발표가 있었던 지난 13일 오후 8시10분부터 30분 가량 거래가 정지됐다.

빗썸 측은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폭증해 서버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정 없는 거래 정지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에도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 거래 중단 사태를 빚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중이다.

빗썸에서 개인정보 3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하지만 당국의 징계가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에 그치면서 빗썸이 버는 수익에 비해 솥방망이 제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소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일본이 50% 정도를 차지하는 데 거래에 문제가 없는 이유가 거래소 안정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가상화폐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가상화폐 자체가 ‘악의 축’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만 과열 현상이 있는 투기 열풍을 잠재워야 한다”며 “거래소 규제를 강화해 관련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행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